

“광주의 100년사 소설에 담고 싶어”

‘제4회 광주일보문학상’ 이미란 교수

“소설가 최명희씨가 전북지역의 풍속사를 담아 ‘흔발’을 쓴 것처럼 저도 광주의 100년사를 담은 장편소설을 써보고 싶습니다.”

단편소설 ‘꽃의 연원’으로 ‘제4회 광주일보문학상’ (이하 광일문학상)을 수상한 이미란(50) 전남대 교수는 “공들여 쓴 작품을 광주일보를 통해 발표하고 싶었는데 의미있는 상까지 받게 돼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광일 문학상은 신문사로써 유일하게 자사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주고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는 제도”라면서 “광주일보 출신 작가로서 자부심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3년 단편소설 ‘본신’으로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된 이 교수는 1994년까



“중학생 때 소설가 꿈 좋아하는 일 하면서 글 쓸 수 있어 행복 빼어난 단편집 내야죠”

지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전남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잠시 교직을 떠났다가 현재는 전남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꽃의 연원’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비밀리에 선교활동을 펼치는 지하교회를 소재로 유사한 상처를 지닌 한국인과 중국인간의 소통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06년부터 1년간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에서 교환교수로 머물며 준비했다. 이번 소설을 위해 ‘한국교회사’, ‘중국교회사’ 등 소설에 도움이 될 만한 책 20권을 읽는 등 꼼꼼한 자료조사를 거쳤다.

“제가 가톨릭 신자이고 교회의 소명이나 진실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번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발표한 소설이고 소설을 쓰고 싶다는 욕구가 충만했을 때 쓴 작품이에요. 뚜렷한 주제의식도 담고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웃음)”

이 교수가 처음 소설을 쓴 것 중학교 2학

년 무렵, 문학청년이었던 이 교수의 아버지가 골방에 모아뒀던 책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소설가의 꿈을 키웠다. 이 교수의 표현을 일부 빌리자면 당시 ‘흔내 내서’ 썼던 소설이 학생문에 잡지에도 실리는 등 나름대로 실력도 인정받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행복해요.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만큼 다른 전업작가들처럼 많은 소설을 쓰기 힘들겠지만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 빼어난 단편집을 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요즘엔 재미있는 소설은 많은데 의미를 담은 소설을 찾기가 힘든 것 같다”면서 “재미있는 소설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작가의 몫이고 독자에 대한 예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지난달 24일 오전 광주일보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심사위원들이 출품작들을 심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중(문학평론가), 전원범(시인·아동문학가), 노창수(시인)씨.

/최헌배기자 choi@kwangju.co.kr

소설 부문 작품 수준 높아

전체적인 작품 수 줄어... 활동 저조 아쉬움

■ 심사평

올해 광일문학상 심사 대상에 오른 작품의 수는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의 활동이 저조했다는 사실은 곧 지역문학 전체의 활동이 저조했다는 말이기도 함을 감안할 때 많이 안타까웠다.

먼저 시 부문에는 총 5명이 응모했다. 전년도 연간집을 참고해 보니 당선작과 응모작들에 비해 편수도 적고 질도 저하된 느낌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돋보인 작품은 ‘금오산에서 길을 잃고’와 ‘몸의 현’이었다. 특히 ‘일기예보를 믿느니 아내의 수술자극을 믿기로 했다’라는 구절이 유독 인상적이었던 작품 ‘몸의 현’은 비교적 상징과 비유가 참신했고, 메시지를 또한 신선했다. 특히 아내의 수술 흔적을 하나의 약기의 ‘현’으로 치환하는 솜씨가 자연스럽고 탁월했다. 그러나 함께 응모한 다른 작품들의 수준이 고르지 않았고, 시어의 압축력이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동화 부문에는 총 19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상의 영예를 안을 만한 수작은 발견할 수 없었다. 동화는 구성면에서 감동구조로 이행해가는 짜임이 잘 짜여야 하고 그 짜임이 재미와 감동을 동반해야 한다. 생활동화나 환상동화 그 어느 쪽이든 재미가 없다면 감동이 약하다면 아무리 형식이 잘 갖춰지고 문장이 유창하다 하더라도

얼은 문학적 성과는 반값이 되고 만다. 이 기준을 놓고 볼 때, 비교적 눈에 든 작품은 ‘마술을 부리는 농사꾼’, ‘바코드 아이’, ‘매나무’ 등이었다.

“마술을 부리는 농사꾼”의 경우 이야기의 전개나 판타지 요건은 무난한데 동화적 리얼리티 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 ‘매나무’와 ‘바코드 아이’는 문장, 구성 등 모두 무리 없이 좋았으나 아쉽게도 수상작이 된 소설 작품에 견줄 만하지는 못했다.

소설 부문에는 총 9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등단한 작가들의 작품인 만큼 수준 이하의 작품은 없었다. 그러나 수상 여부를 논할 만큼 수준 이상의 작품은 두 작품 정도였다.

오윤주의 ‘먼, 생’은 발랄한 아이러니로 이즈음의 세태를 날렵하게 풍자하는 솜씨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를 수 없는 이상적인 삶과 남루한 현실의 대비가 다소 도식적인 데다 주제의식이 무겁지 못했다.

이미란의 ‘꽃의 연원’은 중국을 배경으로 유사한 상처를 지닌 한국인과 중국인간의 소통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구성이 치밀했고, 문장도 안정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최근 한국 소설 초미의 화두인 ‘국경 넘기’의 테마를 자연스러운 서사 속에 녹여낸 시의성을 높이 살 만했다. 이 작품을 올해의 광일문학상 수상작으로 결정하는 데 세 심사위원 모두 이견이 없었다.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심사위원단대표 집필 김형중

신춘문에 출신 작가 창작 활동 지원

■ 광일문학상은

지난 반세기 동안 광주·전남 작가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던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이 보다 왕성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지난 2005년 제정한 상이다.

올해 ‘제4회 광주일보 문학상’에는 소설·시·동화 부문에 총 30여편이 응모했다.

심사는 전·현직 광주일보 신춘문학회 회장인 전원범(시인·광주교대 교수), 노창수(시인)씨와 외부 인사로 김형중(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씨가 맡았다. 수상자 이미란씨는 상금으로 300만원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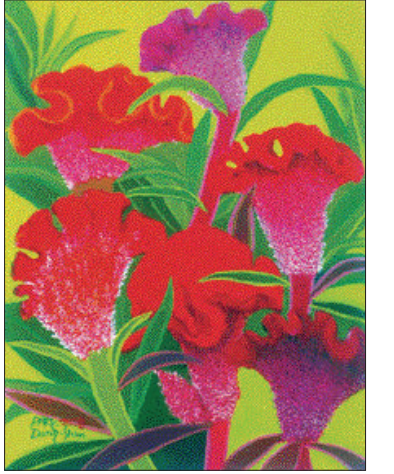
‘작은 그림, 큰 기쁨’展

시안갤러리, 지역 작가 소품 30만~100만원 판매

시안갤러리는 2~31일까지 송년 특별기획 ‘작은 그림, 큰 기쁨’전을 갖는다. 김종일, 노의웅, 진원장, 최영훈, 황영성, 한희원, 강남구, 김상영, 김익모, 류재웅, 박구환, 허정아씨 등 지역 작가들의 소품을 30만~100만원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획전이다.

지역 컬렉터들의 작품 구입 부담을 줄이고, 지역 작가들의 창작 열기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이들 작가의 작품 43점이 선보인다.

박동신씨는 화사하게 피어있는 맨드라미 꽃봉오리의 집합을 살펴 형상화한 ‘passion-맨드라미’, 위진수씨는 눈 내리는 날 피어날 매화꽃을 표현한 ‘눈 속에서 매화꽃을 찾다’를



박동신 작 'passion-맨드라미'

출품했다. 문의 062-573-01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개관 30주년

6일 오후 2시 기념식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오는 6일 오후 2시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근주 문화재청장, 국립중앙박물관 최광식 관장 등이 참석하며 기념식과 크로스 앙상블 ‘허브’의 축하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곁들여 진다.

지난 1978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한 국립박물관은 국회의사당을 설계한 건축가 박준명(84)씨가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

흘림 기둥과 공포, 창틀에 영감을 받아 본관을 설계했다.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 수집, 연구, 전시했으며, 총 60여권의 학술총서와 교양강좌 교재, 박물관 연보 등 수많은 학술 간행물을 발간했다.

또 개관 당시 1천여점에 불과했던 유물은 현재 5만3천여점으로 늘었고, 본관 이외에 연구동과 교육관을 신축해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 2회 대학연극축제 ▶1~7일 ‘공연 1번지’

광주연극협회(회장 박규상)가 주최하는 제 2회 대학연극축제가 1~7일(오후 7시, 3일 공연 없음)까지 소극장 ‘공연 1번지(금남공원 옆)’에서 열린다. 올해는 광주 지역 5개 학교와 대구 개명대가 특별 참가했으며 요즘 문화계 트렌드를 반영하듯 뮤지컬 작품이 강세다.

1일 개막 무대는 호남대의 ‘그리고 그들은 달린다’가 장식한다. 뮤지컬을 만드는 한 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단원들이 공동창작했다.

2일에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전남대의 ‘사라진 신부’는 어디로 갔을까가 무대에 오른다. 결혼식 당일 사

라져 버린 신부를 통해 이 시대 결혼의 의미를 재해석해 본 작품이다.

이어 4일에는 송원대가 브로드웨이 인기 뮤지컬 ‘유리타운’을 무대에 올리며 동시대(5일)는 얽히고 설켜 세 쌍의 연인을 통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상’ 수상작인 ‘춘천, 거기’를 선보인다.

그밖에 대구 개명대는 공동창작극 ‘허트 & 허트’를 공연하며 조선대는 싱글들의 사랑 이야기를 올리버스틱으로 꾸민 브로드웨이 로맨틱 뮤지컬 ‘아이 러브 유’를 무대에 올린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 | | | | |
|---|--|--|---|--|---|
| <p>메가박스 구.린원극장사거리 ☞061-544-0600</p> <p>1관 순정만화 (12세) 최고등급</p> <p>2관 눈먼자들의 도시 (18세)</p> <p>3관 맥스페인 (15세)</p> <p>4관 미인도 (18세)</p> <p>5관 순정만화 (12세)</p> <p>6관 커넥트 (15세)</p> <p>7관 미인도 (18세)</p> <p>8관 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p> <p>9관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15세)</p> <p>•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 <p>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미인도 (18세)</p> <p>2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p> <p>3관 소년은 울지않는다 (15세)</p> <p>4관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15세)</p> <p>5관 바디 오브 라이즈 (12세)</p> <p>6관 맘마미아 (12세)</p> <p>7관 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좌석의 주차장 300대 • • 금요일 심야상영</p> |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앞/아파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앞면)</p> <p>1관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15세)</p> <p>2관 눈먼자들의 도시 (18세)</p> <p>3관 미인도 (18세)</p> <p>4관 미인도 (18세)</p> <p>5관 커넥트 (15세)</p> <p>6관 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p> <p>7관 순정만화(12세)/아내가결혼했다(18세)</p> <p>8관 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p> <p>9관 맥스페인 (15세)</p> <p>10관 순정만화 (12세)</p> <p>• 호년 최대 주차장 • 매일 심야 상영합니다</p> <p>1588-7941 상무점: 상무로 107번길 10번 콜롬버스 하남점: (107번길) 107-107</p> | <p>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커넥트 (18세)/미인도 (18세)</p> <p>2관 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p> <p>3관 눈먼자들의 도시 (18세)</p> <p>4관 앤티크 (15세)</p> <p>5관 아내가결혼했다(18세)/이글아이(12세)</p> <p>6관 미인도 (18세)</p> <p>7관 순정만화 (12세)</p> <p>• 매일 심야 상영합니다 •</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p>• 무료주차 3시간 • 이동권신청사 할인혜택 • 씨너스특시 사무(오전 9시~오후 11시)</p> | <p>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레스트 ☞ 267-7777</p> <p>1관 맘마미아 (12세)</p> <p>2관 미인도 (18세)</p> <p>3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p> <p>4관 소년은 울지않는다 (15세)</p> <p>5관 미인도 (18세)</p> <p>6관 뱅크잡 (15세)</p> <p>7관 순정만화 (12세)</p> <p>8관 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p> <p>9관 앤티크 (15세)</p> <p>10관 맥스페인 (15세)</p> <p>•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85 매일 심야 • 이동권신청사 & OK 캐시카드 할인 혜택</p> <p>• 하미 수령점 289-5757 • 하미 골프점 251-5060</p> <p>• 하미 북관점 282-0825 • 하미 당구점</p> | <p>제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800</p> <p>1관 순정만화 (12세)</p> <p>2관 앤티크 (15세)</p> <p>3관 아내가 결혼했다(18세)/커넥트(15세)</p> <p>4관 미인도 (15세)</p> <p>5관 맥스페인 (15세)</p> <p>6관 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매 227-1960</p> |
|---|--|--|---|--|---|